



14 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소개



남서부협의회

박은주

휴스턴 한인학교 교장



뉴잉글랜드협의회

남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



동남부협의회

선우인호

KCPC 연합한국학교 교장



동북부협의회

김혜성

롱아일랜드한국학교 교감





동중부협의회

김정숙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교장



미시간협의회

박금주

한마음 한글학교 교장



북가주협의회

황희연

모퉁이돌 한국학교 교장



서북미협의회

박수지

코가 한국학교 교장



워싱턴협의회

김선화

중앙한국학교 교감



중남부협의회

구교성





**중서부협의회
이미희**

삼버그한국학교 교장



**콜로라도협의회
유미순**

새문한국학교 교장



**플로리다협의회
김진희**

탬파통합한국학교 교장



**하와이협의회
손애자**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이사

10 월의 낙스(NAKS) 소식

NAKS 제 1 차 지역협의회 회장단과 20 대 집행부의 온라인 만남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이하 낙스) 20 대 집행부 임원진(총회장 김선미)은 지난 9 월 27 일 14 개 지역협의회 회장단과의 첫 만남을 온라인으로 가졌다. 이 회의를 통해 임원소개 및 20 대에서 이루어질 사업소개와 계획, 그리고 **창립 40 주년을 맞이하는 낙스의 발전과 미래 한국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의견 나눔이 이어졌다. 현장에서의 만남 못지않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닉스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각 지역협의회회의 활발한 교육 활동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다.



위 사진은 집행부와 지역협의회장단의 온라인 화상회의 모습

이달의 명언

易地思之(역지사지)



워싱턴통합한국학교(VA) 한 연 성

미국 속담에도 "Be in another person's shoes"라는 말이 있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사를 가름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는 뜻이다. 살면서 타인이 나와 다를 때를 이해 못 해서 생기는 실수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맹자>에 나오는

'易地思之(역지사지)' 이 구절을 기억하고 곱씹다 보면 쉽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된다.

평소에 존경하는 대학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 한국어 독해 능력이 부족한 딸아이에게 대학입학 선물로 주신 말이기도 하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아이와 그 내용을 나누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여는 말임을 설명한 적이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해박한 지식과 능력은 뛰어나지만 인간관계의 참음(忍)과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이 점차 고갈되어간다.

따스한 가슴이 메말라 간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마다 3 초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준다면 극한 상황은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실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우수한 두뇌 회전의 하나이긴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마치 아이큐와는 먼 이야기처럼 회자하고 있다. 사실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만이 타인을 배려한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았으면 한다.

***"3 초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준다면...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만이 타인을 배려한다."***

